

‘모악문학상’ 신설... 수필 창작 활성화 박차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정기총회 갖고 사업 계획 발표·회원 간 교류 확대 방안 등 논의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회장 신영규)가 정기총회를 통해 ‘모악문학상’을 신설하며 지역 문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전주 백송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25년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합평회 재개를 결정하고, 봄·가을 문학기행 추진 등 회원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지역이 전국 수필과비평작가회의(회원 약 500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침체된 점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정환 수필과비평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전북 지역이 더욱 활발히 수필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모악문학상’ 제정 및 300만 원 상당의 출판권 지원을 약속했다.

서 대표는 “문학상이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가 지난달 28일 전주 백송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25년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 문학 발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자는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회원 간 소통과 화합에도 기여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규 회장은 “서정환 발행인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가 전국 최고의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는 1999년 창립된 이래 월간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매년 동인지 〈모악에세이〉를 발간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명사를 초청한 문학특강을 개최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제95회 남원 춘향제’ 4월 30일~5월 6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남원시는 제95회 남원 춘향제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관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남원 춘향제는 조선시대 사랑과 절개의 이야기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1931년 시작되어 2025년인 지금까지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최고(最古)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그동안 문화체육부 선정 우수축제, 전통예술 분야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며 더욱 성장한 춘향제는 작년 제94회에서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100회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제95회 남원 춘향제는 춘향제 100년을 향한 백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100회를 준비하는 정체성 확립과 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하여 대중적인 전통문화 예술축제를 지향할 예정이며, ‘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남원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함양이몽이 야외 도서관(관한루원내 조성) △소리를 주제로 한 댄스·락 경연대회 △요천둔치 품바공연장 △23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향토음식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공연단의 교류공연을 통한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남원춘향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춘향제 기간에 맞춰 할인행사인 춘향페스티벌로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 체험 쿠폰,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시는 이같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로 남원시 전라도권을 넘어 전국구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5년 후인 100회까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5회 춘향제는 축제에 참여하는 모두가 만족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육성 축제 발전 방안·경쟁력 강화 도모

시군 축제 지원사업 설명회·워크숍 가져... 전문가 특강·토론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축제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군 축제 지원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2025년 육성축제 36개(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의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 방안 등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5년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축제 담당자 인력진출 방지 교육 △축제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관계자 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은 한평나비축제, 대전0시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총괄 기획·연출한 장진만 사)관광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이 ‘축제의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글로벌 축제의 성공 요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축제 트렌드 변화를 설명하며, 축제 성공의 핵심 요인인 대표 콘텐츠 개발 전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축제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군 축제 지원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을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김창수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축제 환경과 트렌드를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사고의 전환, 그리고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퍼플오션 전략, ‘기존 지역축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요소를 추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에 축제 추진 담당

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위한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지역 축제장과 연계한 전북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과 축제장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비상임 임원 7명 공개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 지난달 27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단을 이끌어갈 비상임 임원을 이달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이다. 임기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비상임 이사의 주요 직무는 ‘재단 운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이고, 비상임 감사는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재단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임 이사의 자격요건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3급 이상 경력 소지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중 재단법인 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단의 3급 이상의 직급 경력 소지자 △4년제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자에 2년 이상 재직자 △문화예

술단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 예술, 관광, 경영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갖춘 자 △4급이상 전직공무원 등이 해당되며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다.

비상임 감사는 감사직무 수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필수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모집공고 및 응모원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7일 18시까지로, 방문접수, 등기접수,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모든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 해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